숭산 대종사 20주기…“대종사 유지 잇겠다”

화계사 11월 18일 20주기 추모 다례
설정 대종사 등 350여 명 동참해
“모든 중생에 불법 알린 선지식”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숭산당 행원 대종사 문도 대표인 성광 스님이 대종사 진영에 헌다하고 있다.

32개국에 120여 개의 선원을 건립하고 1만여 명의 외국인 제자를 길러낸 해외 포교의 선구자 숭산당 행원 대종사의 열반 20주기를 기리는 법석이 마련됐다.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 스님)는 11월 18일 경내 대적광전과 부도탑에서 ‘숭산당 행원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고 숭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숭산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탄월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등 사부대중 350여 명이 동참했다.

숭산당 행원 대종사(1927~2004)는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당대 선지식이었던 고봉 선사에게 참선을 배웠다. 수행 끝에 고봉 선사에게 전법을 받은 대종사는 광복과 6.25 전쟁 이후 혼란했던 종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불교신문 초대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불교 정화 운동에도 참여했다.

이후 숭산 대종사는 1966년 일본 홍법원(弘法院)을 세우며 해외 포교에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 구소련 등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일평생 수행과 전법에 헌신한 숭산 대종사는 2004년 11월 29일 “걱정하지마라, 만고광명(萬古光明) 청산유수(靑山流水)다”는 말을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는 추모사에서 “숭산 스님은 모든 중생에게 법을 전하겠다는 큰 원력으로 전법에 나선 선지식”이라며 “일평생을 ‘오직 모를뿐’이라는 화두로 선사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진리를 전 세계 중생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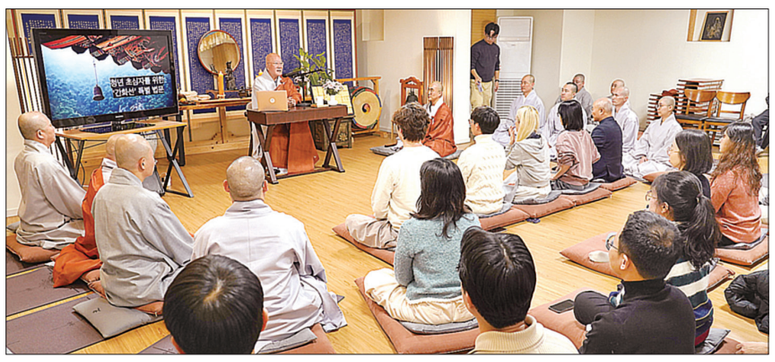
문도 대표인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은 “숭산 스님은 49년 동안 32개국에 120여 개의 선원을 세우고 1만여 명의 외국인 제자를 양성했다”며 “스님은 열반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아닌 일체중생을 위해 기도한 분”이라고 기렸다.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은 “숭산 스님이 남긴 사리 중 사리는 여기 계신 회주스님과 그 뒤를 잇고 있는 제자들”이라며 “화계사 주지로서 숭산 스님의 제자분들이 법을 잘 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례재를 마무리한 사부대중은 숭산 대종사의 부도탑을 참배했다. 참배 후 설정 대종사를 필두로 탑돌이를 하며 숭산 대종사의 자비를 되새겼다.

초심자 위한 수불 스님 조언 “선지식을 만나세요”

11월 19일 서울 홍대선원
禪 초심자 즉문즉답 법회
준한 스님 “좋은 인연 기대”


수불 스님은 선 초심자들을 위한 법사로 나서 선 수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화두를 들고 마음의 본질을 보는 수행인 ‘간화선(看話禪)’을 초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이하는 법석이 열렸다.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11월 19일 경내 5층 법당에서 ‘수불 큰스님의 초心자들을 위한 특별 법문’을 개최했다. 이날 간화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선(禪) 초심자들을 위한 법사로 나서 선 수행에 대한 초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대학생, 직장인 등 청·장년 불자와 대중스님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불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청정한 것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림 없는 것”이라며 “더러운 것과 가까워졌다고 거기에 물들어 더러워지는 건 상대적 깨끗함이며, 물들지 않는 순수함만이 청정하고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불 스님은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내면에 불성을 가져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그렇기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가까이하면 헤매지 않고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법문을 열었다.

즉문즉답으로 진행된 법회는 참가자들의 끊이지 않는 궁금증으로 활발하게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불교를 쉽게 접하는 법’을 비롯해 ‘선지식이 필요한 이유’ 등 궁금증을 제시했다.

최근에 불교에 입문한 참가자는 어떻게 하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을지 물었다. 수불 스님은 “불교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전환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상태라면 누군가의 지도를 통해 배우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를 주최한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홍대선원에서 진행한 첫 초청법회다. 이 시간을 계기로 불교,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가령 기자

K사찰음식, ‘글로벌 입맛’ 사로잡다

‘조계사 사찰음식 나눔 시식회’
내외국인 300여 명 시식
건강, 맛 모두 잡아 ‘호평’

“건강한 채소로 되어 있어서 참 좋았어요, 아름다운 절에서 다양한 사찰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기뻐요!”

루마니아 출신 비올리나·블라비아 씨가 25가지의 사찰음식을 맛보고 밝힌 소감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원명 스님)는 11월 16일 경내 후원 공양간인 보현당에서 ‘조계사 사찰음식 나눔 시식회’을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는 ‘제14회 조계사 국화화엄축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과 청년들에게 한국불교의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식회에는 동국대 글로벌 교류팀 교환학생,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학생, 조계사 청년회 회원 등 3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조계사 주지 원명 담화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준비한 사찰음식은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제철 채소로 만든 것”이라며 “공양 맛있게 하시고 모두 건강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찰음식은 봄동 배추전, 묵은지 김치찜, 단호박 가지 튀김 등 25가지로 준비됐다. 사찰음식 장인 중제 스님이 손수 만들었다. 스님은 “오늘 대접해야 할 대중이 많아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게 대중적인 메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식회와 함께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도 열렸다. 관람객들은 주먹밥 만들기, 다도 시음 체험 부스를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했다. 김민재 기자

도선사, 강북구에 쌀·김치 자비나눔

11월 18일 강북구청 마당서
쌀 5t, 김장비용 3000만원



도선사가 강북구에 쌀과 김장김치 비용을 전달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11월 18일 강북구청 마당에서 쌀 5t과 3000만원 상당의 김장 비용을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에 전달했다.〈사진〉 도선사는 매년 겨울, 강북구 취약계층을 위해 쌀과 김장 김치를 보시하고 있다. 금년은 공양간 불사로 김장 비용을 대신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과 이순희 강북구청장, 김학규 도선사 신도회장 및 사회복지법인 혜명 산하 기관장과 도선사 직영 어린이집 원장 등이 함께 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올해도 자비나눔을 통해 쌀과 김장 김치를 취약계층에 전할 수 있어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재 기자

전국여성불자회, 김장으로 온정 전해

11월 16일, 조계사 경내
김장축제 성황리 마무리



전국여성불자회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눴다.

전국여성불자회는 11월 16일 오후 2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2024 김장은 축제다’를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사진〉 축제에는 전국여성불자회 회원 70여 명과 자립준비청년 30여 명이 참여해 총 2000kg의 김치를 담갔다.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은 “김장은 가족과 이웃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정성껏 담근 김치가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장 김치 중 1300kg은 미혼모 시설과 청소년쉼터 등 서울지역 9개 시설로 전달됐다. 정현선 기자

‘선명상’ 왜,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본부 〈선명상 길라잡이〉 엮어
친근한 설명 · 쉬운 실천법 제시
현대인을 위한 명상 가이드 북



2024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은 해이다. ‘마음 치유를 위한 사회적 정진을 본격화’하자고 선포한 것. 그 일환으로 사부대중을 위해 여러 차례 법회와 강연을 했고, 9월 28일에는 3만여 불자들이 결집한 ‘불교도 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기도 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8회에 걸쳐 선명상의 본질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친절히 안내한 〈선명상 아카데미〉 강좌를 책으로 엮었다.〈사진〉

〈선명상 길라잡이〉는 제목에 걸맞게 선명상의 이론과 실천법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선’이나 불교, 명상 등이 낯선 젊은 층은 물론 지식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양철학과 최첨단 양자역학적 관점을 많은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안내한다.

책을 펴낸 조계종출판사는 “불교 교리나 종교색이 전혀 없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무시로 선명상을 접하고 고락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만 2000원. 임은호 기자

중신회, 라오스 어린이에 물품 후원

11월 4일 서울 대우건설 회장실서
4000만원 상당의 아동의류 전달



중앙신도회가 불교국가인 라오스 어린이를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11월 14일 서울 대우건설 회장실에서 ‘라오스 어린이를 위한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약 4000만원 상당의 아동의류를 주한 라오스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사진〉 해당 물품은 중앙신도회가 지난 10월 만화 캐릭터 ‘티니핑’으로 유명한 SAMG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약 6억원의 아동의류를 후원받아 마련한 것이다.

중앙신도회는 후원받은 아동의류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과 아동관련 기관을 통해 어린이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 미혼모 시설과 미얀마, 스리랑카 등 국내 이주민 법당에도 자비행을 펼칠 예정이다.

정원주 회장은 “라오스를 시작으로 불교국가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이라며 “11월 말에는 인도에 가서 현지 사찰을 통해 직접 후원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장금이학교 2기’ 회향

상반기 이어 하반기 6회기 진행
“醬, 12월 유네스코 등재 예정”



우리 전통 장(醬) 문화를 널리 알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장금이학교’가 2024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은 노인을 대상으로 장 문화를 교육하는 ‘장금이학교’를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진행했다.〈사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올해 12월 한국의 장 담그기 전통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장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런 시류에 따라 우리 장 문화 부흥, 복지 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 장금이학교에 많은 참여자가 유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

대불련 중앙회장 후보에 유주연 지부장

12월 27~28일 정기총회서 선출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3년차(2025년도) 중앙회장 후보자에 유주연 창원지부장〈사진〉이 단독 출마했다. 대불련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목)는 “11월 9일 진행된 논의 결과 2025년 제63년 차 대불련 중앙회장으로 유주연 창원지부장을 선출했다”고 공고했다.

유주연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불교와 인연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신행활동은 대불련을 만나서부터 시작했다. 불교동아리 활동으로 점차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며 “중앙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많은 인연이 도와줬다. 앞으로 포교와 전법에 힘쓰고 새롭게 불교를 접한 대학생 청년 법우들이 즐거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는 12월 27~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재 기자